

빌리에 드 릴아당의 『잔혹한 이야기』와 환상의 만화경

고 혜 선(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서론

본론

1. 리얼리즘 문학과 환상문학
2. 환상문학과 『잔혹한 이야기 *Les Contes cruels*』
3. 환상의 만화경

결론

서론

환상문학은 우리에게 두 개념,
즉 각각 서로 불만족 상태에 있는
리얼리티와 문학이라는 두 개념을 제시해 준다.
- 토도로프, 『환상문학 서설』¹⁾

1) “La littérature fantastique pose la plus grande partie d’un texte comme appartenant au réel, ou plus exactement, comme provoquée par lui, tel un nom laisse entre les mains deux notions, celle de la réalité et celle de la littérature, aussi insatisfaisantes l’une que l’autre.” : Tzvetan Todorov, *Introduction à la littérature fantastique*, Seuil, 1970, p. 176.

환상성 le fantastique²⁾이란 무엇인가? 환상성은 많은 문학 연구자들이 정의하기 모호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왔다. 환상문학의 연구자로 잘 알려진 로즈마리 잭슨은 그 이유로 환상성의 가치가 ‘자유로운 부유’, ‘현실 도피적인 특성’ 속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³⁾ 이처럼 현실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듯한 환상성의 본질적인 성격이 환상성을 정의내리기 어렵도록 하고 있지만, 바로 그러한 성격이 여러 환상문학 연구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환상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시도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문학의 다양한 개념적 정의 가운데서 일관되게 다루어지는 주요 문제는 환상성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다.⁴⁾

문학에서 환상성과 현실 사이의 명확한 관계를 밝히자면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된 문학과 픽션이라는 원론적인 문제로가

2) 환상성 le fantastique이라는 단어는 “상상적인 imaginaire, 비현실적인 irréel”이라는 뜻의 라틴어 phantasticus에서 나온 말이며, 이 라틴어는 또 다시 그리스어 phantastikos를 그 어원으로 가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의하면 phantastikos는 “(비어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 대한 정의는 *Grand dictionnaire encyclopédique*, Larousse, 1983과 Valérie Trittter, *Le Fantastique*, Ellipses, 2001, p. 3을 참고.

3) 로즈마리 잭슨, 『환상성 - 전복의 문학』,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문학동네, 1986, p. 10.

4) 이러한 환상성과 현실에 대한 정의의 예를 들어보면, 카이유아는 환상을 “현실 세계에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소란, 파열, 기묘한 난입을 보여주는 것 Le fantastique, [...] manifeste un scandale, une déchirure, une irruption insolite, presque insupportable dans le monde réel.”이라고 정의했다. (Roger Caillois, «Le fantastique», *Encyclopædia universalis*, 1993. p. 284.) 또 다른 예로는 카스텍스의 정의를 들어볼 수 있는데, 그는 환상성을 “현실 생활 틀 속으로 신비가 갑작스럽게 침입한 것 [Le fantastique] se caractérise [...] par une intrusion brutale du mystère dans le cadre de la vie réelle.”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Pierre-Georges Castex, *Le Conte fantastique en France de Nodier à Maupassant*, José Corti, 1962, p. 8.) 그 밖에도 환상성을 현실에 대한 전복으로 본 로즈마리 잭슨의 정의나, 현실 모방론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본 캐스린 흄의 정의를 그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지 소급해 가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픽션의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상과 현실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현실 모사模寫로서의 문학, 혹은 캐스린 홈의 표현대로라면 “미메시스 mimesis”⁵⁾와 환상성이 맺는 관계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아주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논의의 범위를 축소시켜 현실 모사를 목표로 삼은 리얼리즘 문학과 환상문학이라고 분류되는 것의 특징을 19세기 프랑스 작가인 빌리에 드 릴아당 Villiers de l'Isle-Adam의 『잔혹한 이야기 Les Contes cruels』⁶⁾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빌리에의 작품은 환상문학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리얼리즘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차칫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 두 면모들이 한데 녹아있는 그의 작품들을 통해 이 두 관계를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론

1. 리얼리즘 문학과 환상문학

리얼리즘 문학과 환상문학을 관련시켜 논의하는 일은 다소 엉뚱한 작업처럼 보일 수 있다. 환상문학과 리얼리즘 문학과의 관계는 이미 “-주의 -isme”라는 호칭의 유무로 알 수 있듯이 두 문학을 대등한 차원에 놓고 논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리얼리즘 문학은 19세기에 엄연히 존재하였고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확

5) 캐스린 홈, 『환상과 미메시스』, 한창엽 옮김, 푸른나무, 1984, p. 20.

6) Villiers de l'Isle-Adam, *Les Contes cruels*, in *Œuvres complètes* (tome I), éd. Alain Raïtt et Pierre-Georges Castex, Gallimard, coll.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86. 앞으로 『잔혹한 이야기』에 나오는 단편들은 이 판본을 기초로 한 것이고, 제목과 해당 페이지만을 표기하겠다.

립된 문학사조이지만, 환상문학은 그 호칭 자체도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대중문학의 한 장르로 그 의미가 축소 평가되어 왔고, 또한 도입부에서 언급했듯이 이에 대한 개념적 정의조차도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로즈마리 잭슨의 “환상적 이야기들은 19세기 동안 리얼리즘적 서사와 대립적인 관계로 발전해 왔다”는 주장은 환상문학이 자칫 리얼리즘적 서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발전해 왔다는 과장된 인식과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⁷⁾를 낳기도 한다.

로즈마리 잭슨의 『환상성』이나 캐스린 흠의 『환상과 미메시스』는 리얼리즘 문학과 환상문학을 대립시켜 그 둘의 상호 관계를 밝힌 책으로 평가된다. 이들 중에서 특히 캐스린 흠은 리얼리즘 문학이 스스로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결국 환상성을 영입하는 것으로 그 한계를 넘는 시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상문학의 필연성을 강조한다. 그는 더 나아가 “소설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작가가 어느 사회 계층을 묘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작가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작가의 고유한 가치들이 이야기 속에 녹아들면서 강한 무의식적 편견으로 표현을 왜곡하는 경우가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작가가 보여주는 대상의 리얼리티를 의심하라고 배웠으며, 우리가 보고 배운 것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의심하라고 배웠다”⁸⁾고 하면서 환상성을 배제했던 리얼리즘 문학 내부에서도 이미 작가의 환상이 존재하였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잭슨은 환상성을 가진 리얼리즘을 주제로 삼아 결국 환상보다 리얼리즘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리얼리즘적 환상성 혹은 리얼리즘적 환상문학의 시각을 배제했다는 아쉬움이 따른다.

7) 오생근, 「환상 문학과 문학의 환상성」, in 『문학의 숲에서 느리게 걷기』, 문학과 지성사, 2003, p. 15.

8) 캐스린 흠, *op. cit.*, p. 85.

우리는 여기서 리얼리즘이 과연 어떠한 것이며 어떤 형태로 변모하였는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얼리즘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비추어 보여준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을 과학적인 실험의 대상으로 냉정히 바라보자는 입장을 취했다. 리얼리즘은 그 후에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와 결합하면서 변화한다. 엥겔스의 리얼리즘을 계승한 ‘비판적 리얼리즘’이 봉건 잔재와 19세기 부르주아 사회의 부패와 암흑상을 묘사·비판하는 것으로 사회의 변혁을 시도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비판적 리얼리즘’은 그 후에도 여전히 개인주의에 의거한 채 사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결여되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결부된 문학 사조라기보다는 그것의 전 단계에 머문 것으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루카치는 “비판적 리얼리즘”이 봉건사회나 자본주의사회의 폐해를 비판하고 폭로하면서도 그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며, 일종의 허무주의나 냉소주의로 흘렀다고 본다.⁹⁾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을 볼 때 리얼리즘은 이 단계에서 이미 현실의 투명한 제시보다는 사회비판이라는 목표를 위한 도구, 즉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있는 것으로 묘사하거나 앞으로 필연적으로 와야 할 것을 미리 분명히 보여 주는 기능, 즉 환상성을 갖추어야 할 도구로 변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도로프가 말했듯이 환상문학도 “19세기 실증주의에 대한 불안한 의식”¹⁰⁾을 나타내고, 또 잭슨의 주장처럼 환상성이 부르주아적 범주를 공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¹¹⁾고 본다면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변화한 리얼리즘의 문학과 환상문학은 서로 연계된

9) 게오르그 루카치,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홍승용 옮김, 실천문학사, 1985를 참조.

10) Todorov, *op. cit.*, p. 169.

11) “(환상성은) 실제적인 것의 ‘부르주아적’ 범주라고 규정되는 것들이 주로 공격 받고 있다”: 로즈마리 잭슨, *op. cit.*, p. 40을 참조.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리얼리즘 문학에서 나타나는 환상적 요소에만 주목하지 않고 환상문학에서 리얼리즘적 요소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일도 필요하다고 본다.

2. 환상문학과 『잔혹한 이야기 *Les Contes cruels*』

문학 장르로서의 환상문학은 앞서 말한 것처럼 “환상성”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와 형태를 아우르는 것만큼 풍부하면서도 매우 이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요정이나 괴물이 등장하는 이야기, 고딕소설 또는 아주 단순히 현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문학작품 모두를 아우르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빌리에 드 릴아당의 단편들은 어떤 점에서 환상문학인가? 그의 작품들은 모두 환상문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인가? 그 작품들이 환상문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수많은 환상문학의 스펙트럼 속에 어떤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가? 이것들은 토도로프의 분류처럼 순수한 기괴, 환상적 기괴, 환상적 경이, 순수한 경이 중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¹²⁾ 아니면 캐스린 흠의 분류대로 환영문학, 성찰문학, 교정문학, 탈환영문학의 네 가지 중 어느 영역에 해당될 것인가?

놀랍게도 빌리에의 단편들은 이러한 다양한 분류에 골고루 해당될 만큼 다양한 작품군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그의 수많은 단편들 중에서 빌리에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모두 함축한 작품집

12) 토도로프는 환상문학을 이와 같은 네 개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또 그는 빌리에의 단편 「베라 Vera」가 환상적 이야기로 시작하여 초자연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말이 나는 ‘환상적 경이’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Todorov, *op. cit.*, p. 59를 참조.

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잔혹한 이야기』에 실린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려고 한다. 환상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여기에 실린 작품들을 큼직하게 분류해 본다면 이것들은 첫째, 귀신에 관한 이야기. 둘째, 불가사의한 예감에 관한 이야기. 셋째 괴이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부르주아와 현실을 비판하는 이야기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언급할 이야기들은 일반적으로 환상문학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에서 귀신이나 초자연적 존재는 주인공의 환영 속에서 잠시 등장하는 정도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공이 어떤 환영을 보고 이 환영이 정말 귀신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는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지점과 같은 단계가 아니고, 정말 현실과 상관없는 기묘한 존재가 거리낌 없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주인공의 죽은 아내가 귀신이 되어 나타나 주인공과 함께 생활하다 열쇠를 남기고 사라지는 「베라 Vera」나, 죽음의 천사나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왕 솔로몬이 나오는 「메신저 L'Annonciateur」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다.

두 번째는 환상문학에서 불가사의한 예감에 관한 이야기가 소설의 중심적인 주제로 빠짐없이 등장하는 작품들의 경우이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사건들은 인물들이 겪는 갑작스러운 낯설음과 섬뜩함, 그리고 우연의 일치 등이다. 이 이야기들은 현실과 다른 비현실적 체험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현실적이면서 또한 현실과 어긋나는 내용들이 혼재하면서 독자에게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게 한다. 주인공이 시골 사제관에서 경험하게 된 섬뜩한 환각이 결국 죽음의 전조였다는 「전조 L'Intersigne」나 카페테리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시체공시소의 시체들과 혼동하여 보는 「혼동하는 만큼! As'y méprendre!」 등의 작품들이 보여주는 주제나 이야기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로 괴이한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평범히 마주쳐 지나갔던 사람이 알고 보면 살인귀였다는 이야기처럼 현실 속에서 일반인을 가장한 인물이 현실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이상한 일이나 괴이한 일을 하는 경우의 작품들도 환상문학의 한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만 정절을 지킨다는 바람둥이 여인 「앙토니 Antonie」,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나머지 사형집행인을 매수하고는, 집행인 대신에 자신이 직접 사람을 죽이는 「마지막 회식의 초대자 Le Convive des dernières fêtes」, 망령이 자신을 괴롭히기를 바라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지만, 정작 그 자신이 망령 같은 존재가 된 것을 모르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망 Le Désir d'être un homme」, 총애하던 정부가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자, 방화의 누명을 씌우고 사지를 찢어 죽이려 한 무서운 「이자보 여왕 La reine Ysabeau」, 독심술의 능력이 있는 듯한 귀머거리 「미지의 여인 L'inconnue」 등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마지막인 네 번째의 작품들은 현실에 대한 비판과 부르주아지를 풍자적으로 비판하는 이야기들이다. 이 작품들은 환상문학 중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현실의 모사, 반영, 과장 혹은 패러디 등의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현실을 비판하는 ‘전복 subversion’¹³⁾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빌리에의 작품 속에서는 사회현실이 자주 비판적으로 그려지는데, 그 중에서도 비판의 중심부에 놓인 것은 부르주아지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물질사상, 배금주의, 실증주의에 대한 낭만적인 맹신 등을 비판하기 위해서 환상을 사용하는 면모를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르주아지에 대한 비판이 주제로 되어있는 작품들은 빌리에의 『잔혹한 이야기』에 나오는 단편들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부르주아지가 서로를 때강도로 오인하고 총을 쏘아 결국

13) “자본주의에 의해 생산된 세속문화 속에서 문학적인 환상형식으로 나타난 현대의 환상물은 전복적인 문학이다.”: 로즈마리 잭슨, *op. cit.*, p. 237.

모두 죽는 「노상강도들 Les Brigands」¹⁴⁾, 금화 한 닢으로 매수되는 부르주아지가 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성대한 만찬 Le Plus Beau Dîner du monde」, 사랑보다는 돈을 더 큰 덕목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야기, 즉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비에필라트르 집안의 아가씨들 Les Demoiselles de Bienfilâtre」과 옛된 나이의 연인들이 몰래 만나서 사랑을 속삭이기는 커녕 오로지 돈 벌 궁리만 하는 「비르지니와 폴 Virginie et Paul」¹⁵⁾이 있다. 이밖에도 현실 비판이 섞여 있는 「복스 포폴리(군중의 목소리) Vox populi」와, 「오묘한 회상 Souvenirs occultes」 등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르주아 현실 비판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르주아지가 맹신하였던 낭만적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일 것이다. 빌리에는 다른 작품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과학의 승리 시리즈」¹⁶⁾라고 부를 수 있는 단편들을 통해 실증

14) 이 단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의 부르주아들이 조각세를 받는 날이 다가왔다. 노상강도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각 마을 사람들은 잔뜩 무장을 하고 조각세를 받으러 간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어둠 속에서 우연히 만난 두 마을의 부르주아 남자들은 서로를 노상강도라고 오해한다. 우연히 총알이 발사되고, 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격전이 벌어진다. ‘예술가’인 늙은 바이올리니스트와 농민들로 이루어진 노상강도들은 이 소음을 듣고는 조심스럽게 내려와 보는데, 그들이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두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고, 딱 한사람이 살아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도 이 노상강도들을 보고 당황하다가 자기가 쓴 오발탄에 죽어버린다. 결국 노상강도들은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시체더미 사이에서 돈을 훔쳐 달아난다. 이렇게 「노상강도들」은 어떠한 사건을 그대로 나열하는 리얼리즘 소설의 면모를 띄면서도, 부르주아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스스로 파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5) 「비르지니와 폴 Virginie et Paul」: 이 작품은 베르나르 드 생 피에르 Bernardin de Saint-Pierre의 목가소설 『폴과 비르지니 Paul et Virginie』의 패러디로 볼 수 있다. 『폴과 비르지니』(1787)는 어린 두 남녀가 때 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순결한 사랑을 보여주었다면, 「비르지니와 폴」은 제목의 도처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대 도시 속에서 돈에 연연하는 추악한 사회 풍조를 그대로 답습하는 어린 남녀를 보여준다.

16) 『잔혹한 이야기』에서 “과학의 승리 시리즈”로 분류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하늘의 전전물」, 「영광제조기」, 「마지막 숨의 화학성분 분석기」, 「트리스탕 박

주의에 대한 신랄한 조롱과 비판을 한다. 그가 살던 시대에는 아직 과학이 실현하지 못한 일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가상을 해서 이야기를 꾸려가는 데, 여기에 해당되는 단편들은 다음과 같다. 하늘이 광고의 공간이 되어 버려서 신성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하늘의 선전물 L'affichage céleste」, 극장 객석에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기계를 만들어 관객의 반응을 조작하는 「명성을 만드는 기계 La Machine à gloire」, 죽음을 아주 슬프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로 만드는 「마지막 숨의 화학성분 측정기 L'Appareil pour l'analyse chimique du dernier soupir」, 그리고 신의 계시 같은 것을 못 듣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귀머거리를 만드는 행위를 치료라고 부르는 「트리스탕 박사의 치료 Le Traitement du Docteur Tristan」 등이다.

3. 환상의 만화경

위와 같이 빌리에의 『잔혹한 이야기』의 단편들은 마치 만화경 Kaleidoscope¹⁷⁾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환상들

사의 치료」。 이 네 편의 단편들은 마치 신문의 광고나 새 소식란에 실린 기사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 글들은 실증주의에 입각한 과학의 발전이 세상을 편안하고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는 굳은 믿음이 배어나오며, 어조도 시종일관 실증주의와 과학발전에 대한 찬양 일색이다. 이러한 내용과 어조의 특징으로 “과학의 승리 시리즈”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분류하였다.

17) 만화경 Kaleidoscope: 1816년 영국의 물리학자 브루스터 David Brewster가 발명한 광학장치. 만화경의 원 명칭인 칼레이도스코프 Kaleidoscope는 그리스어로 kalos (아름다운), eidos(모양), skopein(보다)에서 유래했다. 만화경이라는 광학 기구는 원통 속에 크기가 같은 길쭉한 세 개의 평면거울을 삼각기둥이 되도록 끼워 넣어 서로 비스듬히 비추는 구조로 되어 있다. 원통의 한쪽 끝은 젓빛유리로 봉하고, 다른 한쪽 끝에는 들여다보는 구멍을 만들어, 그 통 속에 작은 색종이 조각이나 셀룰로이드 조각을 넣는다. 젓빛유리를 밝은 쪽으로 향하게 하고 구멍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원통을 빙글빙글 돌리면, 이 조각들이 거울의 반사에 의해

을 보여준다. 만화경은 환상적인 형상들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만화경의 핵심 부품은 물체의 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며, 그것이 만들어내는 환상들은 거울의 비스듬한 각도에서 생겨난 것들이다. 여기서 빌리에의 작품들이 만화경과 같다고 비유한 까닭은, 이 작품들 속에 상을 사실적으로 반영해주는 ‘거울’ 격인 리얼리즘적 특성이 들어 있으며, 작가의 의도된 각도 조작에 의해 현실을 비판하고 패러디하면서 우리에게 환상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리에의 글들은 19세기의 리얼리즘 소설에 가깝다. ‘유사 리얼리즘 Pseudo-réalisme’이라고 부를 수 있을 이러한 특징은 그의 소설 어디에서든지 나타난다. 독일 환상문학에 관한 책을 쓴 폴레는 “환상성이 현실을 더욱 더 잘 해체하기 위해서 미메시스의 원칙을 따른다.”¹⁸⁾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미메시스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은 리얼리즘이 지향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현실을 세세하게 묘사하여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리얼리즘이라는 정의를 전제로 했을 경우이다. 빌리에의 『잔혹한 이야기』에서 이러한 ‘유사 리얼리즘’의 예로 먼저 「어둠의 꽃 *Fleurs de ténèbres*」을 들 수 있다.

Et les jeunes ennuyés, jaloux de se bien faire venir des élégantes pour lesquelles ils conçoivent quelque inclination, achètent ces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갖가지 환상적인 형상을 보여준다. “만화경”에 대한 설명은 인터넷 『두산대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59927>, 검색일시 2007. 1. 18. 18:34)과 인터넷 『브리태니커사전』 (<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m=all&articleID=b07m1479a>, 검색일시 2007. 1. 20. 13:25) 항목 참조.

18) “Le fantastique joue le jeu de la mimesis pour mieux déconstruire la réalité” : Jean-Jacques Pollet, *Introduction à la nouvelle fantastique allemande*, Nathan, coll. <128>, 1997. Valérie Tritten, *Le Fantastique*, Ellipses, 2001, p. 22에서 재인용.

fleurs à des prix élevés et les offrent à ces dames.

Celles-ci, toutes blanches de fard, les acceptent avec un sourire indifférent et les gardent à la main, ou les placent au joint de leur corsage.

Et les reflets du gaz rendent les visages blafards.

En sorte que ces créatures-spectres, ainsi parées des fleurs de la mort, portent, sans le savoir, l'emblème de l'amour qu'elles donnent et de celui qu'elles reçoivent.

심심해하던 젊은 청년들은 좀 호감이 간다 싶은 고상한 여인네들을 자신들에게 넘어오게 하고 싶은 마음에 이 비싼 가격의 꽃을 사지요.

분가루를 온통 하얗게 쳐바른 이 여인들은 좋지도 싫지도 않은 무심한 미소를 지으며 그걸 받아 손에 들고 있거나 보디스의 틈에 끼워 놓습니다.

가스등 불빛은 그녀들의 얼굴을 창백하게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산송장 같은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죽음의 꽃으로 치장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그녀들이 상대방에게 주는 사랑의 표시이자 또 상대방에게서 받는 사랑의 표시를 지니는 것이지요.

「어둠의 꽃」(p. 667.)

「어둠의 꽃」에서는 조화(市花)로 사용되었던 꽃들을 훔쳐다가 거리에서 파는 사람들과, 거짓 사랑을 팔기 위해 거리에 앉아있는 매춘부들, 그리고 그 매춘부에게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죽음의 꽃 des fleurs de la mort”을 사서 선사하는 젊은 청년들이 묘사되며, 이러한 묘사들은 리얼리즘적이다. 그러나 이들이 주고받는 “어둠의 꽃 Fleurs de ténèbre”이란 순수한 사랑의 표시라기보다는 돈으로 사고파는 비인간적인 사랑의 상징이 되며, 또 “산송장 créatures-spectres” 같은 여인의 치장물이 되면서 이렇게 사랑을 돈으로 거래하는 어두운

현실에 대한 비판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 같은 예로 「복스 포폴리」를 들어 볼 수 있다.

Grande revue aux Champs-Élysées, ce jour-là !
Voici douze ans de subis depuis cette vision. [...]
«Prenez pitié d'un pauvre aveugle, s'il vous plaît !» [...]
Et le peuple, fasciné, comme toujours, par le prestige qui sort,
pour lui, des coups d'audace et de fortune, proférait, en clameur,
ce vœux du moment :

«Vive l'Empereur !» [...]
«Prenez pitié d'un pauvre aveugle, s'il vous plaît !»
Grande revue aux Champs-Élysées, ce jour-là !
Voici neuf ans de supportés depuis ce soleil trouble ! [...]
«Vive le Maréchal !»

Là-bas, du côté de la salubre enceinte, l'immuable Voix, la voix
du vétéran de l'humaine Misère, répétait sa machinalement dou-
loureuse et impitoyable obsécration :

«Prenez pitié d'un pauvre aveugle, s'il vous plaît !»
바로 그날 상젤리제에서는 웅장한 열병식이 있었다!
그리고 그 광경 이후 12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중략]
“제발 이 불쌍한 장님에게 동정을 베푸십시오!” [중략]
그리고 늘 그랬듯이 민중들은 그들 자신이 보기에 대담한 행동과
신분이 우러나오는 위엄에 매혹되어서, 아우성 속에 시대에 맞는 염
원을 다음과 같이 외쳤다.

“황제 만세!” [중략]
“제발 이 불쌍한 장님에게 동정을 베푸십시오!”
바로 그날 상젤리제에서는 웅장한 열병식이 있었다!
그 불안한 날로부터 9년을 견뎌 온 것이다! [중략]
“국가원수 만세!”

저기 저편, 멀쩡하게 남아있는 울타리 안쪽에서 변함없는 목소리, 인간의 비참이라는 것에 대해 베테랑인 사람의 목소리가 그 고통스럽고 애처롭기 짝이 없는 탄원을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제발 이 불쌍한 장님에게 동정을 베푸십시오!”

「복스 포폴리」(pp. 562~564.)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작가는 그 사회의 희망을 잃은 불행한 사람들을 그리면서, 그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고 언제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월의 흐름 속에 때마다 명분은 다르지만 계속 되풀이 되는 열병식과 처참한 상황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지 장님을 대치시킨다. 작가는 여기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변함없는 목소리 l'immuable voix”, “제발 이 불쌍한 장님에게 동정을 베푸십시오! prenez pitié d'un pauvre aveugle!”라는 “탄원 obsécration”을 “반복하 répétait”는 장님을 그리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홀로 시간이 멈춘 듯이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탄원을 반복하고 있는 장님의 모습이나, 과장에 가까울 정도로 반복적인 열병식에 대한 묘사의 효과는 이 사실적인 글을 결국 비현실적이며 환상적인 분위기의 작품으로 만든다.

이렇게 빌리에의 작품은 모파상과 유사한 문체를 구사하며 현실을 비판한다. 그러나 그는 부르주아의 낭만주의적 실증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한다.¹⁹⁾ 빌리에는 과학에 대한 맹신이나, 인류는 필

19) 레 Raitt의 빌리에 드 릴아당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 빌리에가 “l'esprit réaliste”에 반대했다는 부분이 있다. 또 타디에 Tadié의 글에서도 부르주아지의 réalisme에 비판을 했다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이 논문에서 말하는 리얼리즘과는 다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리얼리즘은 현실비판 고발적인 리얼리즘이 아니라 그 시대 통론, 예를 들어서 실증주의 positivisme와 같은 것에 맞추어 사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번역을 “리얼리즘”이라기보다는 “현실주의”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A. W. Raitt, *Villiers de l'Isle-Adam et le mouvement symboliste*, José Corti, 1986, p. 184와 Jean-

연적으로 진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게 될 것이라는 부르주아지의 낭만적인 전망을 과장된 설명 방법과 비판적이고 조롱이 섞인 묘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로 실증주의자의 분석 방식을 패러디한 작품들을 들어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과학의 승리 시리즈”로 분류한 바 있는 일련의 소설들에서 극명히 나타난다. 먼저 「영광제조기 La machine à gloire」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Jugeons-en par l'analyse, par la froide analyse de son procédé, — au double point de vue abstrait et concret.

Trois questions se dressent *à priori* :

1° Qu'est-ce que la Gloire ?

2° Entre une machine(moyen physique) et la Gloire(but intellectuel) peut-il être déterminé un point commun formant leur unité ?

3° Quel est ce moyen terme ?

Ces questions résolues, nous passerons à la description du mécanisme sublime qui les enveloppe d'une solution définitive.

바탕의 분석방법, 그 냉철한 분석방법으로 바탕이라는 인물을 추상적인 면과 구체적인 면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지요.

아 프리오리,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세 가지 의문이 성립합니다,

1. 영광이란 무엇인가?
2. 기계(물질적 수단)와 영광(지적 목표) 사이에서, 이 양자의 공통인수를 설정할 수 있는가?
3. 그 중간항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문제들을 풀고 나서, 이것들을 최종 답안 하나로 아우르

Yves Tadié, *Introduction à la vie littéraire du XIX^e siècle*, Dunod, 1998, p. 144에서 참조.

는 그 숭고한 기계장치에 대해 서술할 것입니다.

「영광제조기」(p. 584.)

위와 같이 벨리에는 실증주의 분석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냉철한 분석방법 *la froide analyse de son procédé*”, “추상적인 면과 구체적인 면 *point de vue abstrait et concret*”, “*아 프리오리 a priori*”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지만, 앞뒤가 전혀 의미 있게 연결되지 않는 비논리적인 주장을 짐짓 펼친다. 그러고는 이러한 황당한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영광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도 돈을 주고 산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위와 같은 전형적인 실증주의자들의 용어를 오용함으로써, 결국 실증주의의 맹신과 배금주의를 패러디한 것이다. 『트리스탕 박사의 치료』에서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실증주의적인 태도를 패러디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Et soudain, se précipitant sur votre oreille, il y colle sa bouche. Puis, avec une intonation d'abord lente et basse, mais qui ne tarde pas à s'enfler comme le rugissement de la foudre, il y articule ce seul mot: «HUMANITÉ». Les yeux sur son chronomètre, il en arrive, après vingt minutes, à le prononcer dix-sept fois par seconde, sans en confondre les syllabes [...].

Au bout d'une demi-heure, le vase de votre entendement étant rempli de la sorte, il devient nécessaire de le *boucher*, n'est-il pas vrai?... de peur que son précieux contenu ne s'évente. Chavassus, donc, aux approches du moment qu'il juge psychologique, vous introduit dans les oreilles deux fils d'induction tout particulièrement enduits, préparés et saturés d'un fluide *positif* dont il a le secret. — Chut! ne bougeons plus!... Il touche l'interrupteur d'une

pile voisine ; l'étincelle part dans votre oreille.

그리고 박사는 갑자기 여러분의 귀로 와락 달려들어 입술을 가져다 댁니다. 그런 다음, 처음에는 느리고 낮은 음조였지만 금세 천둥이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은 단 하나의 단어를 발음합니다. “유마니떼(인류)” 박사는 크로노미터에서 눈을 떼고 있지 않다가, 20분이 지나면 그 단어를 초당 열일곱 번 발음해 들려줍니다. [중략]

이렇게 30분 정도가 지나면, 여러분의 이해력 단지는 그런 식으로 가득 차게 되므로, 그 입구를 틀어막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중요한 내용물이 날아가 버릴까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샤바위스 박사가 생각하기에 심리적인 어떤 순간이 다가오면, 전선줄 두 가닥을 당신의 양쪽 귀에 넣습니다. 이것은 박사 자신만의 비법으로 만든 실증적인 용액에 흠뻑 적시고 처리한 특별히 코팅된 전선줄이지요. 췌! 더 이상 움직이지 마세요!... 박사가 옆에 있는 전지의 스위치를 만지자, 당신의 귀에서 불꽃이 튀입니다.

「트리스탕 박사의 치료」(pp. 732-733.)

이 작품에서도 「영광제조기」에서처럼 치료 과정에 대한 묘사에 “크로노미터 *chronomètre*”, “전선줄 *fil d'induction*”, “스위치 *l'interrupteur*”, “실증적인 용액 *un fluide positif*” 등의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여러 단어들을 동원한다. 그러나 환자는 이러한 치료과정 끝에 병이 치유되기는커녕 고막이 터져서 아무 것도 들을 수 없는 아이러니컬한 결과에 다다른다. 이와 같이 “과학의 승리 시리즈”는 얼핏 보면 과학과 실증주의에 대한 찬양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심층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맹신과 오용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지금까지 논의해 온 단편집의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빌리에의 장편 소설인 『미래의 이브 *L'Ève future*』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미래의 이브』는 전체 분량의 6분의 1 정도인 14개의 장에 걸

처 기계인간 “아달리 Hadaly”에 대한 세세한 구조 설명을 하고 작동 원리를 묘사 한다. 마치 과학기술의 이론서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인공 피부, 관절, 머리카락 등에 대해서 세세히 다루고 있다.²⁰⁾ 내용의 전개와는 상관없는 이러한 물체의 정밀한 묘사와 나열은 리얼리즘 소설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문체적으로만 본다면 빌리에의 소설들은 쥘 베른의 공상과학 소설보다도 더 공상과학적인 요소를 담고 있으면서도 그 세부묘사는 훨씬 ‘사실임직 vraisemblable’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 기술 용어의 나열은 자크 노아레가 주장한 것처럼 빌리에의 “반실증주의 anti-positivisme”를 강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²¹⁾ 빌리에의 단편들에서는 실증주의를 맹신하는 주인공들이 등장해 이성과 과학중심주의를 찬양하지만, 결국 그들의 극단적인 추구가 얻어내는 것은 완전한 실패나 세상에 대한 환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빌리에가 실증주의를 정면으로 패러디하며 조롱하는 반실증주의자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빌리에 드 릴아당은 그의 단편들 속에서 부르주아지의 비판이나 사회의 세태에 대한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귀족의 우월주의 혹은 예술가들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다. 먼저 귀족의 우월주의에 대한 예로는 고대나병 환자와 악수를 하겠다는 고집을 부려 결국 세계 마지막 고대나병 환자가 되어 외롭게 죽는 「포틀랜드 공작 Duke of Portland」과 같이 어리석은 자나,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해서 사형형리를 매수하여 합법적인 살인을 즐기는 귀족 「마지막 회식자 Le Convive des dernières fêtes」,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가문의 후예인 「오묘한 회상」의 주인공은 결국 막연한 불

20) 『미래의 이브』 제5권 「아달리 Hadaly」는 기계 여인 아달리의 구조에 대해 16장(5장. 「균형 잡기」, 9장. 「장밋빛 입술과 진주 치아」, 14장. 「머리카락」, 15장. 「피부」 등등)에 걸쳐 묘사하고 있다. Villiers de l'Isle-Adam, *L'Ève future*, in *Œuvres complètes* (tome I), Gallimard, 1986.

21) Jacques Noiray, *Le Romancier et la machine* (tome II), José Corti, 1982, p. 243.

안감에 어쩔 줄 모르는 소인으로 묘사된다. 상징주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희곡 「악셀 Axël」²²⁾에서도 고귀함을 믿는 귀족 남녀가 만나 지상 외의 그 무엇인가를 회귀하다가 결국 장렬하게 죽음을 선택하는 종말을 보여주지만, 결국 그들의 죽음에 따른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허무한 결말은 귀족에 대한 노스탤지어나 찬양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사상의 불모성에 대해서 자조 섞인 패러디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빌리에는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엘리트주의적인 작품 활동을 했다는 비판에서 스스로도 벗어나기 힘든 면모를 지녔지만, 그는 『잔혹한 이야기』에서 예술가의 엘리트주의에 대해서도 패러디를 통한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감상주의 Sentimentalisme」에서 엘리트주의에 젖은 예술가 청년이 냉철한 분석과 여러 이론들을 읊어대지만, 결국 그러한 능력과 고집 때문에 사랑하던 여자로부터 절교를 당하고 권총자살하고, 「인간이 되고자하는 욕망」에서는 연극배우 쇼드발이 남의 감정 표현이 아닌 진정한 자신의 감정인 “회한 LE REMORDS”(p. 661)을 느끼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방화 살인을 저지는 광인이 되며, 「옛 음악의 비밀 Le Secret de l'ancienne musique」에서는 옛 악기인 차이니즈 파블리온을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음악가가 “침묵의 크레센도 un CRESCENDO de silences”(p. 641)를 연주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죽어버리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양상의 패러디들은 현실을 환상성 속으로 끌고 가는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22) Villiers de l'Isle-Adam, *Axël*, in *Œuvres complètes* (tome II), Gallimard, 1986.

결론

빌리에 드 릴아당은 다양한 작품을 통해 리얼리즘적인 문체를 표방하면서도, 현실의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패러디를 보여준다. 현실과 매우 가깝지만 무엇인가 기묘하게 다른 환상성을 통한 현실비판은 그의 장편 『미래의 이브』 현사인 “몽상하는 사람에게, 야유하는 사람에게 *Aux rêveurs, aux railleurs*”²³⁾에서도 극명히 나타난다. 빌리에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환상성은 바로 몽상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또 그 이면에 숨어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은 바로 야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화경 속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다양하고 환상적인 형상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런 형상들이 빚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그 끊임없이 펼쳐지는 현란한 광경들을 계속 바라보고 싶은 욕망을 떨쳐내면서 만화경을 분해해 보게 된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 만화경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네모반듯한 거울 세 조각과 밑바닥에 깔려 있는 작고 보잘 것 없는 셀로판지 쪼가리들이다.

빌리에의 『잔혹한 이야기』라는 만화경도 우리에게 각종 환상적인 풍경을 제시하지만, 그 만화경을 자세히 뜯어보면 리얼리즘이라는 거울이 들어있다. 그 거울은 빌리에의 작품 속에서도 여전히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만, 풍자와 패러디의 시각으로 비딱하게 배치되어 있어 아이러니컬하게도 환상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23) Villiers de l'Isle-Adam, *L'Ève future*, op. cit., p. 766.

□ 참고문헌

Villiers de l'Isle-Adam, *Les Contes cruels*, in *Œuvres complètes* (tome I), éd. Alain Raitt et Pierre-Georges Castex, Gallimard, coll.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86.

Villiers de l'Isle-Adam, *Correspondance générale de Villiers de l'Isle-Adam et documents inédits* (tome I, II), Mercure de France, 1962.

_____, *Les Contes cruels*, éd. Pierre Reboul, Gallimard, coll. Folio, 1983.

_____, *Axël*, in *Œuvres complètes* (tome II), éd. Alain Raitt et Pierre-Georges Castex, Gallimard, coll.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86.

_____, *L'Ève future*, in *Œuvres complètes* (tome I), éd. Alain Raitt et Pierre-Georges Castex, Gallimard, coll.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86.

Caillois, Roger, «Le fantastique», *Encyclopædia universalis*, 1993.

Castex, Pierre-Georges, *Le Conte fantastique en France de Nodier à Maupassant*, José Corti, 1962.

Noiray, Jacques, *Le Romancier et la machine* (tome II), José Corti, 1982.

Raitt, Alain W., *Villiers de l'Isle-Adam et le mouvement symboliste*, José Corti, 1986.

Tadié, Jean-Yves, *Introduction à la vie littéraire du XIX^e siècle*, Dunod, 1998.

Todorov, Tzvetan, *Introduction à la littérature fantastique*, Seuil, 1970.

Tritter, Valérie, *Le Fantastique*, Ellipses, 2001.

게오르그 루카치,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홍승용 옮김, 실천문학사, 1985.

로즈마리 잭슨, 『환상성 - 전복의 문학』,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문학동네, 1986.

오생근, 「환상 문학과 문학의 환상성」, in 『문학의 숲에서 느리게 걷기』, 문학과지성사, 2003.

캐스린 흠, 『환상과 미메시스』, 한창엽 옮김, 푸른나무, 1984.

Grand dictionnaire encyclopédique, Larousse, 1983

인터넷 두산 대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59927>
2007.1.18. 18:34)

인터넷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
viewContents.do?&m=all&articleID=b07m1479a](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m=all&articleID=b07m1479a) 2007.1.20.
13:25)

«Résumé»

Les Contes cruels de Villiers de l'Isle-Adam,
«le kaléidoscope fantastique» du réel

KO Hye-Sun

Qu'est-ce que le fantastique ? Le fantastique est un genre problématique dont diverses théories proposent autant d'approches distinctes. Il est néanmoins intéressant de noter que ces théories explorent toujours la relation du fantastique avec le réel. Or il est presque impossible de définir cette relation dans la mesure où cette entreprise reviendrait à répondre à la question soulevée depuis Aristote sur la relation entre la littérature et la fiction. Notre étude va donc se limiter à discerner les caractéristiques fantastiques dans *les Contes cruels* de Villiers de l'Isle-Adam en comparant les aspects de la littérature fantastique du 19^{ème} siècle présents dans ces textes à ceux de la littérature réaliste.

Au premier abord, le fantastique paraît essentiellement contraire au réalisme : en effet, le fantastique a toujours cherché à fuir le réel, voire à s'opposer au réel tandis que le réalisme s'est efforcé d'être le miroir du réel. Or si l'on prend en considération l'ultime but du réalisme, qui est de dénoncer des problèmes du réel, les deux notions de fantastique et de réalisme ne paraissent plus si totalement opposées l'une à l'autre.

Les œuvres des *Contes cruels* sont souvent classées dans le domaine de la littérature fantastique, notamment *Véra* qui est

l'histoire d'une revenante ou «jeune morte», mais on peut difficilement toutes les décrire comme des histoires de fantômes, caractéristiques cependant redondantes du genre littéraire fantastique. *Les Contes cruels* offrent une gamme tendue et diversifiée de récits fantastiques, dont le personnage-clé est aussi bien une revenante qu'un personnage sinistre ou morose, et dont l'histoire est imprégnée d'un présage inquiétant, ou bien marquée par les railleries sur la société du 19^{ème} siècle et de la bourgeoisie.

A travers ces contes fantastiques, Villiers de l'Isle-Adam exprime sa haine contre le positivisme et le matérialisme sous le voile d'un style propre à la littérature réaliste. On peut ainsi qualifier l'auteur de «pseudo-réaliste». Pseudo, parce que s'il est vrai que le style qu'il emploie s'apparente au réalisme, il en offre surtout une version clairement parodique, à visée satirique. Villiers de l'Isle-Adam nous donne à voir le fantastique du réel par l'intermédiaire du miroir du réalisme, de même que le kaléidoscope montre des images 'fantastiques' grâce à un système ingénieux de miroirs qui reflètent des images pourtant réelles.

주제어 : 빌리에 드 릴아당, 『잔혹한 이야기』, 리얼리즘, 반실증주의,
부르주아지, 환상성

Mots-clés : Villiers de l'Isle-Adam, *Les Contes cruels*, le réalisme,
l'anti-positivisme, la bourgeoisie, le fantastique

투고일 : 2006년 9월 20일

심사완료일 : 2006년 10월 31일

고혜선

가톨릭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현재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주요 논문: 「『잔혹한 이야기 *Contes cruels*』의 잔혹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2001).